

데스크 시각



박진헌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에드워드 호퍼’ ‘조선의 백자...’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 얼핏 보면 이질적인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요즘 국내 미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블록버스터전이라는 것이다. 주로 백화점에서만 볼 수 있는 ‘오픈 런’이 등장할 만큼 ‘핫’하다.

시발지는 부산시립미술관이었다. 지난 1월 개막한 일본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전은 전국에서 밀려드는 관람객들로 3월 7일까지였던 전시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서울도 아닌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이지만 3개월간 누적 관람객 14만 6180명을 동원했다. ‘무라카미 다카시’전이 끝나자 이번에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미술 애호가들이 몰려들었다. 지난달 20일 국내 최초로 선보인 미국 화가 ‘에드워드 호퍼-길 위에서’전(4월 20-8월 20일)이었다.

올 봄 미술계 달군 ‘에드워드 호퍼’

사실, 이번 호퍼전은 과거 전시 대행사와 연계해 ‘장소’(미술관)만 빌려주던 서울시립미술관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호퍼 작품과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는 휘트니미술관과 기획 단계부터 협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전시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난달 7일 막이 오른 광주비엔날레가 ‘몰입’ 만큼 트유티어에는 #에드워드 호퍼 #서울시립미술관 #사전 예약 등의 해시태그가 점령하고 있다. 1만 7000원(성인 기준)의 유료 관람에도 사전 예

은펜칼럼

비엔날레 옆 미술관

매 티켓만 13만 매가 판매되고 지난 14일까지 8만여 명이 다녀갔다.

이달 초 취재자 방문한 미술관 앞은 길게 늘어선 입장 행렬로 인기몰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전시장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나눠 매회 300명(사전 예매 250명, 현장 판매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술관 앞은 인증 샷을 찍는 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삭막한 도시와 현대인들의 고독을 그린 호퍼의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좀처럼 국내에서 보기 힘든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딱딱했던 현대 문화 향유에 대한 갈망이 터진 탓인지 전시장은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로 뜨거웠다. 인상적인 건, 입장객 가운데 캐리어를 끌고 온 원정 관람객이 눈에 많이 띈다는 점이다. 이들은 에드워드 호퍼전 뿐만 아니라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렐라’전도 둘러보기 위해 1박 2일 코스로 서울을 찾는 것이다.

며칠 전 ‘좀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4월7~7월9일)를 찾았다. 개막한 지 한 달이 넘는 비엔날레 전시관은 평일이어서인지 일반 관람객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나마 전시장의 적막을 깨우는 건 유원회과 중·고등학교 단체 관람객들이었다. 순간, 관람객들로 넘쳐나는 ‘서울의 풍경’이 떠올라 씩씩했다.

전시장을 빠져 나와 비엔날레와 이웃해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자리한 중외공원쪽으로 향했다. 신록이 우거진 공원 곳곳에는 비엔날레 관람을 마친 듯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숨을 고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립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지 않아 비엔날레 축제를 느끼기 힘들 만큼 한산했다.

물론 시립미술관은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해 네덜란드 파빌리온 프로젝트인 ‘세대간 기후 범프 재관소: 멸종 전쟁’과 5월 향정을 조명한 ‘김호석: 검은 먹, 한 점’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은 물론 타 지역이나

외국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비엔날레의 출품작들과 ‘갈’이 비슷해 다양한 볼거리를 기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엔날레’ 겨냥한 블록버스터전 없다

만약, 시립미술관이 비엔날레 관람객을 겨냥해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전을 기획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다. 비엔날레의 난해한 현대 미술과 시립미술관의 대중성 높은 작품이 동시에 열린다면 관람객들을 축제의 열기 속으로 불러들이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유명 미술관들이 도시의 메가 축제에 맞춰 흡인력 있는 대규모 기획전을 개최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다.

17일로 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한 지 40일을 맞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좀처럼 축제 열기가 살아나지 않아 ‘집안 잔치’로 끝나는 건 아닌지 하는 선부터 예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비엔날레의 흥행이 단지 비엔날레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 여행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비엔날레를 축으로 도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엔날레 옆 시립미술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은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는 비엔날레와 연계한 예술관광의 큰 틀에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신생 미술관인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해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기념해 루오재단, 파리 퐁피두센터와 공동 기획한 ‘조르주 루오’전으로 전국구 미술관으로 부상했다. 개관 31주년을 맞은 시립미술관이 분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에는 창설 30주년 기념 비엔날레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기획전으로 시립미술관의 존재감을 보여 줘야 한다. 비엔날레 기간에 되레 ‘개집 휴업’인 미술관은 민망하지 않은가.

社說

‘암매장·발포 경위’ 속속 드러나는 5월의 진실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80년 당시 발포 경위와 암매장 등 미완의 진실을 밝혀 줄 단서들이 잇따라 발굴됐다. 광주역 첫 집단 발포에 앞서 투입된 3공수 여단 소속 계엄군들이 서울에서부터 실탄을 직접 들고 왔다는 간부 증언에 이어 해남에서는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세 구가 나왔다.

1980년 5월 당시 3공수여단 지휘 간부였던 70대 A씨는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투입 당시) 개인별로 60발씩 쓸 수 있도록, 실탄을 증대별로 배분해 한 박스에 보관하고 다녔다”며 “이 실탄은 서울에서부터 탄통째 들고 온 것”이라고 증언했다.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1000여 명이 최소 6만 발이 넘는 실탄을 미리 들고 온 것은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신군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0일 밤 11시께 광주역 앞에서 최초로 집단 발포를 자행, 시민 다섯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에 배치됐을 때 회의 과정에서 “전남

대 정문에서 신고 온 시신 여덟 구를 교도소 북쪽 공동묘지 인근에 가매장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5일 해남읍 백아리 육군 31사단 산하 예비군 훈련장 인근 야산에서 5·18 당시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세 구를 발굴했다. 5·18조사위는 계엄군으로 참여한 장병들로부터 유골을 매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발굴에 나섰다고 한다.

5·18 당시 발포 경위와 암매장, 행방불명자 등은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핵심 의혹으로 남아 있다. 계엄군이 출동 당시부터 실탄을 갖고 내려온 것이 최소 6만 발이 넘는 실탄을 미리 들고 온 것은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신군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0일 밤 11시께 광주역 앞에서 최초로 집단 발포를 자행, 시민 다섯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에 배치됐을 때 회의 과정에서 “전남

공사 중 상수도관 잦은 파열 예방 대책 세워야

엊그제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산사거리 도시철도 5공구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118톤의 수도물이 누수됐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번까지 3년 동안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은 25차례에 이른다. 이로 인해 4만 4401톤의 수도물이 유출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남구 백운동 공사 현장에서 6017톤, 5월 동구 동명동에 사는 2만 308톤이 유실됐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이처럼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공사 현장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994년부터 68억 원을 투입해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지리 공간 정보를 디지털화해 수치 지도로 작성한 ‘상수도 지리 정보시스템(GIS)’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020km의 송수관과 배수관·도수관·급수관 정보가 구축됐다. 하지만 상수도 GIS가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하자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GIS 정확도 외에도 워터 해머(배관 밸브를 급속히 폐쇄할 경우 충돌파가 생기는 것), 상수관망 노후화 등을 상수도 누수와 파열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요즘처럼 가뭄이 심한 때에 지하철 공사장에서 인위적인 상수도관 파열로 새어나가는 수도물은 너무나 아깝다. ‘상수관 지도’가 있음에도 지하철 공사 도중 잦은 상수도관 파열로 수도물이 유출되는 원인이 단순 부주의인지 GIS 정확도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다 면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소중한 수도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에는 상수관 외에도 하수관·가스관·전기관 등이 그물처럼 얽혀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막아야 한다.

無等鼓

원조 교제로 받은 역대 의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세간의 화제다. 미상년차 때부터 원조 교제 상대에게 9억 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5억 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고교생이던 2004년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자신보다 13살 많은 전업 주식투자자 B씨와 선관계를 맺고 2006년부터 6년 동안 9억 3703만 원을 받았다. 자금 출처를 수상하게 여긴 세무 당국이 2020년 5억 3087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한테 받은 돈은 조건 만남의 대가였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B씨가 A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A씨의 진술이 패소의 빌미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성매매 대가라고 할 수 없고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여세법상 대가성이 있으면 부과 대상이지만 부모의 재력에 따라 사회 통념상 금액에 도 편차가 크다. 2016년 대구고법은 결혼 및 예물 송을 냈다. A씨는 B씨한테 받은 돈은 조건 만남의 대가였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여세 논란

2017년 B씨가 A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A씨의 진술이 패소의 빌미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성매매 대가라고 할 수 없고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여세법상 대가성이 있으면 부과 대상이지만 부모의 재력에 따라 사회 통념상 금액에 도 편차가 크다. 2016년 대구고법은 결혼 및 예물 송을 냈다. A씨는 B씨한테 받은 돈은 조건 만남의 대가였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G증권발 추가 조차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자신의 회사 주식 매도로 605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배경을 ‘증여세 재원’ 마련이라고 해명했다.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사퇴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증여가 부자에게 부의 대물림 수법이 되는 세상, 제대로 세금만 내면 뭐라 하겠는가. /정필수 사회담판 편집국장 bungy@

은펜칼럼

가족은 하늘이 내려준 귀중한 선물

마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경미가

A씨는 40대 초반, 공무원이던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35년 간 수절하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A씨는 숨을 거둘 무렵 출산의 기쁨과 사별의 아픔, 자녀들에 대한 위로의 글로 부모의 사랑을 남겼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일일이 아들 딸들을 호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곁에 있어 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은 컷등을 시리게 했다. 이렇듯 A씨의 자식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애뜻함을 알 수 있으며, 유서를 읽는 동안 장례식장은 한 어머니의 한없는 자식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감격에 휩싸였다.

다른 실화도 있다. 2022년 9월 6일 오전 7시 40분께 경북 포항시 모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다”는 관리실의 방송을 듣고 어머니 B씨(51)와 아들(15)이 함께 자동차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서 자신의 차를 봤다. 그러나 물이 더 차올라 차 문을 쉽게 열리지 않아 아들은 겨우 차량 밖으로 나왔으나 어머니는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생사가 갈리는 상황에 이르자 B씨는 아기가 불뿔하여 탈출이 불가능을 알고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먼저 지하 주차장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그때 아들은 “엄마, 그동안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고 나갔다. 그런데 그 후 어머니는 주차장 위쪽 배관 위에서 14시간 버틴 끝에 다음 날 밤 다행히 구조되었다. 하지만 아들

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다음 날 새벽 죽음을 발견되었다.

여기 소개한 두 예화는 부모 자녀 간 사랑의 사랑과 애뜻한 이야기이다. 사실 우리들은 매일 가족의 깊은 사랑과 관심, 기도 속에서 살아간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가 되며 서로 힘이 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원이 함께 주거하며 공동체 생활 단위로서 가정을 이룬다. 그런데 요즘 많은 이혼(지난해 9만 3000여 건)으로 가족이 흩어지는 가운데 ‘한 부모 가정’은 115만 가구나 된다. 그리고 자살(OECD 1위)과 살인,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여러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전 가구의 33.4%(2021년)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 이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당면 과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143만 9038명으로 2021년에 비해 약 20만 명이 감소, 3년 연속 줄어들며 경제 성장 잠재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가정을 ‘화초’와 ‘박카스’에 비유한다. 가정은 화초처럼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서 달라지며, 또 박카스를 마시면 피로가 풀리듯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 피로를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선물이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는 말이 생각한다. 이번 가정의 달 5월에는 각 가정마다 ‘기쁨의 선물’이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한다.

기고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를 보고

아졌고 춤사위가 빠졌지만 덕분에 음악에 집중할 수 있어 나를 괜찮았다.

꽃잎처럼 쓰러진 뉘, 이유도 모르고 죽은 소년은 노래한다. 어머니... 어머니. 비석을 아무런지며 풀을 뽑으며 울기만 하는 어머니. 누가 그녀를, 그 아픔을 안아 줄 것인가. 민주주의의 제단에 바쳐진 젊은 청년의 영혼은 구천을 헤매는데, 어떻게 그를 위로해야 하나. 가슴을 두드렸다.

구두댈이는 그날 처음으로 조국의 이름을 불렀노라 가슴 벅처한다. 폴뿌리 같은 민중의 강인함이며! 조국은 그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지만 오히려 그 피가 장미꽃이 되어 조국에 민주의 꽃을 선사하였다. 수많은 전라도 뼈구기 울음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민주주의로 부활하였다.

주먹밥을 나누며 하나 되었던 그날의 정신이 헛되지 않게 아무런 역사를 띠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일어난다고 외치는 이종장을 들으니 그만 마음이 뜨거워져, 합창단원이 일어서지 않았다면 내가 일어설 뻔하였다.

세계의 모든 신바람이 모여드는 광주, 빛고을.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평화의 깃발이 되어 새벽에 오시는 연인인듯 민족 통일의 서광이 비쳐 오리라 힘차게 노래

하며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뛰어난 연주와 광주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솔리스트들의 협연은 연극 배우 강유미 님의 처연한 연기와 어울려 5월의 밤을 달랐다.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처럼 5·18민주화운동 기록 물도 세계 인권 기록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올랐다. 사실 너무 아파 다시 들춰보고 싶지 않은 기록물이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피가 어떻게 6·29 선언을 이끌어 냈는지, 민주화의 꽃을 피우게 했는지 기념해야 한다.

드라마, 영화, 소설, 그리고 음악 5·18을 소재로 한 이러한 시도들이 고마운 것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위대한 유산을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담급질하기 때문이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 직접 현장에서 그날을 겪었던 시인과 작곡가의 경험이 작품 곳곳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5·18을 기억하려는 시도가 클래식 공연계에도 불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강은희 수필가

봄은 송화를 잘게 썰어 우리집 거실에 툇둑 던졌다. 여기저기 묻어나는 노란색, 5월이 시작된 것이다. 나의 대학 시절 5월은 송화가루에 뒤섞인 매캐한 최루탄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다. 5·18 오라토리오 공연 초청장의 검은 표지를 보며 그날의 함성이, 매캐함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고 문병란 시인의 5·18 관련 시에 호남신학대 김성훈 교수가 합창과 관현악 반주를 붙여 만든 서곡을 비롯한 13곡으로 된 교향곡이다. 연주회는 지난 12일 저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무대 오른쪽 한편에는 자그마한 무덤이 있어 그날의 비극을 묵묵히 드러내었다. 무대가 작년보다 조금 작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